

# 2019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북도 음성군  
- 대소지역아동센터



2019. 8

---

정\*아

---

외지에 갔을 때 책임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매 순간 긴장했지만, 센터 담당자님들과 소통하고 주도적으로 활동 전반을 이끌어가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교육봉사 경험이 많아서 지원 당시에 새로운 것을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막상 가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제까지의 봉사 경험을 통틀어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정이 많은 아이들, 친절하 센터, 긍정적인 팀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모든 것이 좋았던 만큼 5일이 짧게 느껴졌고, 다녀온 뒤에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어서 가능하면 또 가고 싶다.

---

배\*영

---

아이들과 함께 했던 4박 5일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다. 아이들과 준비해간 활동들을 함께 하고 그 활동들을 하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처음 보는 멘토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

김\*영

---

이번 여름 이화봉사단 활동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을 정도로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급식봉사를 했고, 대학교에 입학에서도 교육봉사 동아리를 했기에 이번 이화봉사단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화봉사단을 갔다온 현재, 4박 5일간의 경험이 제가 한층 성장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첫째 날 아이들을 마주치기 전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만난 후로 그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준비한 프로그램도 잘 따르고 열심히 활동하는 아이들을 보며 힘든 것도 잊고 나도 정말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4박 5일 간의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을 때는 여름방학 내내 대소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쉬웠다. 돌이켜보면 이화봉사단은 나에게 '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추억'이었다.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은 내가 평생동안 받을 사랑이었기에, 다시 찾아갈 겨울까지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있길 바란다.

---

전\*영

---

지정교안과 자체제작 교안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줄지, 참여도가 어떨지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봉사 장소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니 봉사하는 5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순수하고 이화 선생님들을 좋아해주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행복했고, 그런 기회를 갖게 해준 사회봉사팀에게 감사했다.

---

정\*지

---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책임감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조원들과 협업을 통해 스스로의 모자란 점을 마주하며 자아가 한단계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봉사를 해보고 싶어졌다.

이번 이화봉사단 4박 5일의 교육봉사 일정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나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되었다. 처음에는 직접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짜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냈다. 그 속에서 단원들과의 수많은 회의와 만남, 매일 수업이 끝나고 하던 운영회의 등은 우리가 쏟아 부은 열정을 담고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4박 5일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그 중간에는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었는데, 다 지난 후에는 더 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과 시끌벅적했던 아이들의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서 여운이 오랫동안 남았다.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은 “누구세요?”라고 물으며 우리를 궁금해 했지만 다 끝나갈 즈음에는 “가지마세요”, “나중에 또 오세요.” 등의 말을 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나중을 기약하고 있어서 놀라웠다. 짧은 시간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단원들과 아이들 이야기를 대부분의 이야깃거리로 삼아 나눌 만큼 일상이 아이들로 꽉 차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다. 특히 아이들의 각양각색인 모습들을 보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며 그들에게 집중했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는 처음이라 정말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 외에도 정서적인 교감을 필요로 해서 처음에 그 감정들을 다루기 힘들었지만, 나중에 적응하니깐 나름 또 괜찮았다. 또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힘들었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우리가 가는 모습을 보고 인사하러 나왔을 때 그 아이에게 힘들었던 감정을 느꼈던 것이 싹 사라졌고 마냥 고마웠다.

이화봉사단에서 하는 봉사 기회는 한 번 탈락한 후에 얻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다. 생각보다 쉬운 봉사는 아니었지만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고,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 층 더 성장한 것 같다. 또 혼자하면 절대 못했을 일들을 다 함께 함으로써 4박 5일간의 일정을 다 잘 끝낼 수 있었다. 함께 숙소로 귀가하면서 봤던 여름밤의 풍경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